

# KOCHAM Economic Briefi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Inc

2015년 7월 1일(수)

## 【 미국 경제 동향 】

- 1) 내년부터 한국 해외송금 쉬워진다
- 2) 미국-쿠바 대사관 재개설, 반세기 만에 관계복원

## 【 산업·시장 동향 】

- 1) 보험중개업체 윌리스그룹, 타워스왓슨과 합병 성사
- 2) 현대자동차, 원격 시동 앱 출시
- 3) "IoT 혁신으로 헬스케어 비용 341조원 줄 것"-골드만삭스

## 【 해외 경제 동향 】

- 1) 세계은행, 중국 성장 둔화 바람직

## 【 미국 경제 동향 】

### 1) 내년부터 한국 해외송금 쉬워진다

- 지난 29일 한국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내년부터 한국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송금하거나 외환을 받을 때 필수였던 갖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외환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발표
  - 이에 따라 유학생 가족과 수출입업자 등의 외환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송금도 증가해 한인사회로의 자금 유입도 더욱 활성화
- 앞으로는 거래자가 실명 확인을 거쳐 거래 사유만 은행에 밝히면 증빙서류 없이 외화로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게 되며 명확한 기준금액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될 예정
  - 이번 조치는 송금 및 외환거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규제 일변도로 원활한 자금이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
- 한편, 관련 규제 완화로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짐과 동시에 상계나 제 3자 지급 등 실제 외환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인 거래는 신고가 불필요한 금액 상한선이 현재 2,000달러에서 1만~2만 달러 선으로 상승

### 2) 미국-쿠바 대사관 재개설, 반세기 만에 관계복원

- 지난 30일 WSJ은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 반세기 만에 양국 수도에서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보도
  - 대사관 개설은 양국 간 국교가 정상화됐음을 알리는 공식적 선언이라는 평가

- 대사관 재개설은 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1961년 이후 54년 만에 있는 일이며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국교 정상화 선언에 합의한 이후 약 6개월 만임
- 미 정부는 지난 1월 쿠바에 대한 무역 및 금융 거래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여행을 자유화했으며 이후 5월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
- 한편, WSJ는 미국과 쿠바 간 이번 합의에 대해 양국 간 반세기에 걸친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가장 중대한 진전이라고 지적

## 【 산업·시장 동향 】

### 1) 보험중개업체 윌리스그룹, 타워스왓슨과 합병 성사

- 지난 30일 세계 3위 보험중개업체 윌리스그룹은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한 타워스왓슨 인수에 합의했다고 발표
- 인수 규모는 약 180억달러(약20조934억원)에 이를 전망, 타워스왓슨 주주들은 보유주식 1주당 2,6490주의 윌리스 주식을 지급 받으며 이에 따라 합병 완료시 타워스왓슨 주주들은 49.9%, 윌리스 주주들은 50.1%의 비중을 차지
- 합병회사명은 윌리스 타워스왓슨으로 바뀌며 새 회사의 회장직과 CEO직은 윌리스 회장 제임스 맥칸과 타워스왓슨 회장 겸 CEO 존 할 리가 각각 맡을 예정
- 한편, 합병회사는 전 세계 120개국에 총 3만9000명의 직원을 두게 되며 전체 매출은 82억달러(약9조15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합병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양사는 이번 합병으로 향후 3년간 연 1억~1억2500만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2) 현대자동차, 원격 시동 앱 출시

- 지난 30일 USA투데이는 현대자동차가 애플워치를 통해 음성명령만으로 원격 시동을 걸 수 있는 모바일 앱 ‘블루링크’ 를 출시했다고 보도
- BMW나 폭스바겐 등 완성차업체 역시 자신의 차량만을 위한 앱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앱을 출시한 것은 현대자동차가 최초
- 블루링크를 사용하면 자신의 차량과 스마트폰이 서로 정보를 교환, 차량 정비와 관련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블루링크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 다운 가능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는 블루링크 1세대와 2세대 기술이 적용된 쏘나타, 제네시스, 그랜저 모델 등이 있음

## 3) “IoT 혁신으로 헬스케어 비용 341조원 줄 것” -골드만삭스

- 지난 29일 골드만삭스는 ‘The Digital Revolution Comes to U.S. Healthcare’ (미국 보건의료에 디지털 혁신이 불고 있다)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IoT 기술이 원격진단 (Telemedicine), 원격치료(Telehealth) 등 헬스케어 분야에 혁신을 일으켜 미국의 헬스케어 지출 비용을 341조원 정도 감소시킬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 2013년 기준 미국의 한 해 헬스케어 지출 비용은 전체 GDP의 18%에 달하며 2020년에는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미국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의 보건의료 분야 혁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가까운 미래에 감소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

- 또한 보고서는 IoT 헬스케어로 인한 변화의 첫 번째 기조로 ‘기술과 의학의 연결을 통한 의료진과 환자 행태의 변화’를 제시하였고 그동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료 형태가 만성질환 환자들의 개선된 환자 결과(patient outcomes)와 이상사태(adverse event)의 감소, 그리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줘 왔기 때문에 만성질환 부문이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토양이 되어줄 것이라고 예상
- 한편, 보고서는 IoT 헬스케어 기술로 진단의 부정확성과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어 따라 가까운 미래에 대략 341조2950억 원의 헬스케어 지출비용이 경감될 것이며 그 가운데 223조 8000억 원이 만성질환 부문에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

## 【 해외 경제 동향 】

### 1) 세계은행, 중국 성장 둔화 바람직

- 지난 1일 세계은행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7.1%에서 내년엔 7%, 2017년엔 6.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7.4%로 1990년 이후 최저치
- 세계은행은 이 정도의 성장세 둔화는 바람직하며 중국 정부가 막대한 부채에 의지했던 급격한 성장을 뒤로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평가
  - 또한, 중국의 성장모델 중심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투자에서 소비, 수출에서 내수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
- 한편, 세계은행은 중국이 경제구조개혁을 지속하려면 금융 부문 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당부